8강 패션과 에로티시즘

1. 패션에 대한 여러 견해

1.1 예링의 견해

◇ 예링은 패션의 본질을 자신이 상류계층이란 것을 부각시키기 위함이라 한다.

→ 구별 짓기의 본능

◇ "오늘날 패션의 본질을 파악하려면 변화욕, 미적 감각, 겉치레를 좋아하는 것, 모방본능 등과 같은 (…) 개인적인 동기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이런 동기들이 극히 다양한 시대에 (…) 의상의 형태를 결정하는 데 (…) 일정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오늘날의 의미에서 패션은 개인적인 동기가 아니라 사회적 동기를 갖고 있으며, 이를 올바로 인식하지 않고서는 패션의 본질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상류 계급이 하류 계급, 좀 더 정확하게는 중간 계급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지으려는 노력이 바로 패션을 구성한다. (…) 패션은 끊임없이 해체되기 때문에 항상 새롭게 세워지는 장벽이며, 이를 통해 상류 세계는 중류 사회와 스스로를 차단시키려고 한다. 그래서 신분상의 허영심이 쳇바퀴 돌듯 하는 현상이 무한대로 반복된다. 한 집단은 뒤에서 쫓아오는 자들보다 조금이라고 앞서려고 노력하고, 다른 집단은 최신 유행을 즉각 받아들여 그런 차이를 다시 없애려는 것이 그것이다. 이것으로 현대 패션의 특징적인 양상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패션은 상류 사회에서 기원하며 그것을 중간 계급이 모방한다. 패션은 위에서 아래로 퍼져나가는 것이지 결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중간 계급이 새로운 패션을 유행시키려고 시도해봐도 (…) 결코 잘 되지 않을 것이다. 상류 계급에게 있어 중간 계급이 이 계급만의 독자적 패션을 만들어내려는 것만큼 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없다. 따라서 두 번째로 패션은 부단히 변한다. 중간 계급이 새로 등장한 패션을 받아들이자마자 그것은 (…) 상류 계급에게서는 이미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다. (…) 따라서 참신함은 패션의 불가결한 조건이다. (…) 패션의 수명은 패션의 보급 속도에 반비례하며, 우리 시대에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점점 더 완벽해지면서 패션의 전파 수단도 증가하는 만큼 패션은 점점 단명하게 된다. (…)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 사회적 동기로부터 오늘날의 패션이 가진 세 번째 특징도 설명되는데 (…) 폭군적 성격이 그것이다. 패션에는 어떤 사람이 '상류 사회에 속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외적인 기준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포기할 생각이 없는 사람은 설령 (…) 새롭게 유행하고 있는 패션이 아무리 싫더라도 그런 유행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 (…) 패션은 이런 식으로 평가해야 한다. (…) 약체인 데다 어리석은 패션을 흉내만 내고 있는 계층도 자신의 존엄에 눈을 뜨고 자부심을 갖게 되면 (…) 패션은 운명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의상으로 신분 차이를 강조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거나 혹은 신분 차이가 있을 경우 그것을 존중하기에 충분한 분별을 갖고 있던 다른 민족에게서 한때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미는 다시 본래의 장소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루돌프 폰 예링, 『법의 목적』, 2권, 라이프치히, 1883년, 234-238페이지. 『아케이드 프로젝트』〔B6;B6a,1〕

1.2 폭스의 견해

◇ 폭스는 예링의 견해가 패션의 두 가지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 하나는 소비사회의 특성 즉, 헌 것을 버리고 새것을 사게 만드는 메커니즘을 말한다

→ 또 다른 하나는 에로티시즘 적인 것이다.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 예링의 패션론에 대한 푹스의 견해. “반복해서 말하는 부분이지만 패션이 빈번하게 변화하는 것은 계급적인 구별을 두고자 하는 관심에 의한 것이라고는 해도 그것은 몇 가지 이유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두 번째 이유로서 이익률을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매출을 향상시켜야 하는 사유재산제 자본주의의 생산 양식을 들 수 있는데 이것도 (…)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 이 두 번째 이유를 예링은 완전히 무시했다. 세 번째 이유도 그는 간과했다. 즉 패션이 에로틱한 자극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신 유행하는 옷을 입은 남자 혹은 여자의 에로틱한 자극이 그때까지와는 다른 형태로 떠오를 때 그런 목적은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 (…) F. Th. 피셔가 (…) 패션에 대해 쓴 것은 예링보다 20년이나 이전이었기 때문에 그는 패션 형성에 있어 계급적인 구분의 경향을 알지 못했으나 (…) 대신 다른 한편으로 의복이 갖는 에로틱한 문제를 의식하고 있었다.” 에두아르트 푹스, 『중세에서 현재까지 삽화로 보는 풍속의 역사, 부르주아 시대』, 별권, 뮌헨, 53/54페이지. 『아케이드 프로젝트』〔B7a,4〕

◇ 푹스의 이 패션의 세 가지 본질을 또 다른 철학자 세 명이 연구한다.

→ 구별짓기: 부르디외

→ 소비사회: 보드리야르

→ 에로티시즘: 벤야민

2. 욕구와 욕망

2.1 욕구와 욕망의 차이

◇ 욕구와 욕망은 모두 결핍에서부터 생겨난다.

◇ 욕구는 단순히 충족을 지향하는 것이다.

◇ 욕망은 충족을 미루면서 그것을 지향한다는 점이 다르다.

→ 에로티시즘은 욕망의 차원

◇ 욕구는 현실적 충족

◇ 욕망은 정신적인 것이다.

→ 상상은 충족되지 않는다.

2. 의복과 욕망

2.1 옷과 에로티시즘

◇ 유행에 뒤떨어진 옷을 입는다는 것은 성적 매력이 뒤떨어진다는 것이다.

◇ 어느 세대든 바로 이전 세대의 패션을 생각할 수 있는 한 최고로 철저한 항-최음제로 체험한다. 이런 판단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초점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다. 패션은 정도 차는 있지만 모두 사랑에 대한 신랄한 풍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모든 패션 속에는 극히 무자비한 방식으로 성적 도착의 기미가 들어 있다. 모든 패션은 유기적인 것과 대립하고 있다. 모든 패션은 살아 있는 육체를 무기물의 세계와 결합시킨다. 살아 있는 것에서 패션은 사체의 모든 권리를 감지한다. 무기적인 것에서 섹스어필을 느끼는 물신 숭배야말로 패션의 생명의 핵이다. 『아케이드 프로젝트』〔B9,1〕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 옷을 입는 순간 우리는 욕망의 존재가 된다.

◇ 귀 따가운 길거리가 내 둘레에서 울부짖고 있었다.
상복 차림의 날씬하고 호리호리한 여자 하나가,
장중한 비통의 얼굴로 지나갔다, 화사한 한 손으로
꽃무늬의 장식의 옷단을 치켜들고 흔들어대면서;

조각상과도 같은 종아리로 날쌔고도 고상하게.
실성한 사람처럼 움찔해진 나는 마시고 있었다,
회오리바람이 싹트는 납빛 하늘 같은 그녀의 눈에서,
사람 호리는 상냥함과 사람 말려죽이는 즐거움을.

한 가닥 번개 …… 그러고는 밤! --- 그 눈매로
나를 별안간 되살려놓고는 도망치는 미녀여.
이젠 저승에서밖엔 너를 다시는 못 보겠지?

머나먼 딴 곳에서! 너무 늦어! 어쩌면 영영!
네가 가는 곳 내가 모르고, 내가 가는 곳 네가 모르니,
오, 내가 사랑했을 너, 오, 그걸 알고 있던 너! -「마주친 여자에게」『악의 꽃』

◇ 보들레르는 가장 에로틱한 장면을 거리에서 만났다.
◇ 스피노자 "A라는 정념은 오직 그보다 강한 B라는 정념에 의해서만 극복된다."
◇ 우리는 건강한 에로티시즘을 개발할 수 있는가?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